

탈 석유문화에 앞장 서기를

박 영 숙

오늘과 같은 성인황포의 한국사회에서 제 몫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것은 염치 없는 일로 여겨져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추궁은 권리가 주워지고 나서 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책임의식이란 역사의식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날까지의 상황에서는 청년들이 역사의식을 가지면 좌절당하게 되고 참여하면 수난을 겪어야 했던 처지에서 청년들의 비역사화 또는 탈 역사화의 경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오히려 청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것이 순서인것 같다.

그러나 오늘의 청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간에 그들의 삶의 권리는 그들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책임을 말할수는 있다. 국민이 정부에 대해서, 근로자가 기업주에 대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대해서, 자기의 권리를 자기가 찾아야 하듯이 성인에 대해서 청년들은 장래성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먼저 찾는 것이 그들의 책임수행의 첫 과제가 될 것 같다.

한국사회는 개방사회인듯 하나 폐쇄사회여서 청년들의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워지지 않고 있다. 온 세계를 누비며 자유롭게 학습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있는 다른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며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청년에게 연민의 정을 금할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 자유만 없는것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도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형형색색의 제약이 그들을 얽어매고 있다. 장발에서 비롯해서 각종 연구활동에 이르기까지 구속받지 않는일이 거이 없을 지경이다. 하라는 일보다 하지 말라는 일이 더 많은 것을 청년들은 경

험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과생되는 문제의 불가피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오늘의 청년들이 자기의 삶에 양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큰 좌절이 아닐수 없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행세를 할 수가 없고 대학중에서도 소위 일류대학을 나와야만이 취직도, 사회적인 대우도, 결혼도 원하는 대로 할수있다는 고정관념이 깨지지 않는 풍토에서는 원하건 원치않건 능력이 있건 없건 무조건 대학에는 입학하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은 원한다고 다 갈수 있는가! 그렇치 못한데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1979학년도 대학지망자수는 40만명이며 1980학년도에는 50만명이 해아리었다. 이러한 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라고 한다. 그런데 1980학년도의 예를 보면 50만명중의 $\frac{1}{4}$ 인 12만명이 4년제 대학에 입학했고 38만명은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 했든 것이 실정이다. 문제는 입학하지 못하는 데 있는것이 아니라 이 결과로 입학자의 3배가 넘는 수의 낙방자들이 시험 답안지 하나로 인간평가를 받아 인생의 낙오자처럼 살아야 한다는데 있다. 대학의 수용능력이 인구증가와 교육열을 못미처 발생한 결과가 청년인구의 절대다수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대책의 마련의 화급성을 요구한다.

청년들은 각기의 취향과 자아실현의 가능성에 따라서 거주지역과 직업의 선택을 할수 없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농촌의 경우 공업화의 바람으로 젊은인력(특히 여성)이 도시로 유출됨으로 해선 농촌청년들이 신부감이 없어서 진통을 겪어야 한다고 하니 아무리 농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의 자기의 사명을 찾으려고 한다해도 그럴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청년이 그의 소질이나 능력으로 보아 하나의 기능공을 천직으로 삼으려 한다 하더라도 임금이나 사회인정의 차이가 오늘처럼 두드러진데서야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고 하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삶의 양상은 천태만상일수가 있고 또한 그 선택에 있어서도 다양해질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삶의 보상이 평준화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어느것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각기가 선택한 삶의 양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수 있는 사회풍토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것이 사회에 대한 청년의 책임을 묻는일에 선행되어야 겠다.

현대 문명속에서의 청년기란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어린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독립된 어른도 아닌 샌드위치 시기라고들 한다. 그러기에 아무데도 끼지 못하는 주변기에 처해 있어서 청년들은 주변인으로서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직업, 가정, 인간관계, 사회, 문화, 이념, 역사의 세계에서 자신의 가능한 위치, 향방, 역할에 대한 “자아발견”과업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세계속의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이 오늘을 살며 내일을 설계하는 일에 있어서 분명히 통찰해야할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80년대의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위기 또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하며 이것은 큰 변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수 있다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1. 석유고갈의 예고가 가져다준 석유문명의 몰락기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미래지향적으로 삶을 사는 오늘의 청년들에게 중요한 계기가 되어 준다.

오늘의 세계가 현재의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그리고 우리의 생활양식을 그대로 계속 이끄러간다면 20년 또는 30년사이에 우리의 오늘의 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로하는 석유는 고갈되고 1백년이면 석탄도 바닥이 난다고 한다. 20년이면 오늘의 50세이상인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로서 오늘을 우치좌지하고 있는 년대는 이렇타할 불편없이 생을 마치게 될것이나 오늘의 기형적인 문화를 유산으로 물려 받아야하는 20대의 청년들은 석유문명이라는 이름의 탕아였던 조상을 원망하며 가엾게도 죽어가게 될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미래이다.

석유가 떨어지면 원자력, 원자력이 떨어지면, 태양에너지, 그리고 그다음을 핵융합에너지 등등 대체에너지가 얼마든지 있다고들 하나 그것도 결코 알라딘의 램푸마냥 무엇이건 인간의 소원대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크다. 어쨌든지간에 대체에너지란 20~30년의 단기 전망이라면 모르나 100년을 넘는 장기전망에서는 모두 막다른 골목에 부딪치고 있다고 한다.

세계인류는 이렇게 대체에너지가 희망이 없는데서 대안을 모색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그것을 두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하나는 유한한 지구를 벗어나서 무한한 우주에의 도전이고 또 하나는 석유문명과 같은 대규모의 집중적이고 화려한 에너지 ㉠소모형의 문명에서 탈피하여 소규모의 분산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문명 즉 인간과 자연사이에 조화를 주축으로하는 인간존중의 “소프트문명”으로 진로를 바꾸는 일일 것이라는 것이다. 즉 현

대의 인류는 탈 석유문화를 하기 위해서 1차산업혁명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거나 우주로 나가는 방법을 놓고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방법이 훨씬더 인간다운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V

그래서 이미 영국에서는 에너지절감형의 문명사회건설을 위한 모델촌이 건설돼 바람직한 미래사회건설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의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74년이래 매년 석유소비를 1.1%씩 주리고 있고 미국도 과감하게 석유수입량을 주리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석유문명은 결코 이대로 존속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방울의 석유도 생산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자원도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며 오늘의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2. 석유문명이 인류에게 갖어다준 폐단은 비단 자원의 물량적인 한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연자원을 탕진하여 얻은 경제성장의 대가로 우리에게 환경 오염이라는 괴물을 남겼다. 이 괴물은 유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더욱 문제된다. 70년대의 경고사항으로 나타나기 시작된 인류가 멸망 직전에 있다는 생태학적위기현상이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피부로 느끼는 체험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먹을수 있는 식품과 마실수 있는 물과 호흡할 수 있는 공기의 부족현상에 서서히 닥아서고 있다. 가난에 찌들은 과거를 펼쳐보겠다는 일념에서 물가치한 문명을 비판없이 뒤늦게 쫓아간 그 결과는 바로 인간이 살수있는 조건의 위협수위인 지점에 도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청년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잘못된 역사의 오류를 멈추는 일에 힘을 기우려야함도 책임의 하나가 된다.

3. 석유문명의 몰락 또는 생태학적위기도 그러 하거니와 한국사회에는 산업 구조를 비롯한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문제중의 일부를 들수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빌린다면 70년대의 세계경제의 흐름이 71년도의 “달러쇼크”로 인한 “안정조건”과 73년도의 1차 “오일쇼크”로 인한 “성장조건”을 잃게 됨으로 해서 60년대의 고도성장의 꿈을 버리고 70년대는 자국의 국민경제때에서 극복하려는 저성장경제정책의 추구였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역행해서 수출을 원동력으로 하는 “고도성장”을 추진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더 많은 외국자본, 외국기술, 외국원자재에 의존하여야 하게 됐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외채에 대한 원리금상환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국민경제의 자주, 자립의 요건을 날로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공산품을 수출해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국적이 없는 경제시책으로 79년도의 식량자급율의 경우 60%로 감축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를 유지하고 외채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면서라도 수출은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무역 역조가 증가되어 80년도에는 50억불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럼으로 해서 79년도의 외채가 78년말의 148억불보다 늘어난 206억불이며 80년도의 70억불이 늘어난다면 300억불선을 육박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시말해서 국민 일인당 40만원의 가까운 빚을 지게 된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악순환이 언제 끝날런지는 알수 없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러한 현실이 오늘의 청년이 물려 받아야 하는 유산인것만은 틀림없다.

우리는 자구책을 찾지 않으면 앓되는 시점에 놓여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뼈아픈 고통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변혁에는 기득권이 없는 청년들이 앞장설수 밖에 없을것 같다. 그 앞날을 보다더 많이 살 권리가 청년에게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구책이란 우리의 조건과 능력과 가능성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는 일이라,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민족자본인 국토와 인력자원에 보다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임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필연성에 따라서 우리는 남북통일을 보다 갈망하게 되는 사실이다. 그 이유야 여러가지 이겠지만 다음의 한가지 예로도 납득이 간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으므로 해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점의 지적이다. 현재 남북이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의 많은 비중을 상호간의 전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 남북의 국방비가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편은 민족의 출혈이 아닐수 없다. 남북통일이란 국내외정세에 의하여 되어지는 일이라고는 하나 우리의 버릴 수 없는 꿈이 아닐수 없다.

민족자본을 활용하는 일에 있어서 또하나 생각할수 있는 문제는 선진국들이 이미 지향하고 있는 탈도시화의 경향에 대한 고려이다. 경제적인 힘이 있다. 사람들이 공해로 오염된 도시에서 더이상 살기좋은 삶을 살수

없어서 도시를 벗어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고 민족이 살아있는 길을 찾는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탈 도시화의 시도를 말한다.

세계는 이미 73년도의 1차 석유파동을 위시해서 자원민족주의가 대두되었으며 오늘의 석유무기화에서 앞으로의 식량무기화와 더 나아가서는 마실수 있는 물의무기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시사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인제 우리는 농촌문제를 새롭게 보아야할 때가 왔다. 공업화로인하여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어야 했던 도시집중현상은 인제 그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농촌경시의 정부시책과 우리들의 잘못된 의식을 크게 변경하여야만 하겠다.

농촌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옛날농촌으로 옛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미래를 개척하는 역군으로서 도시문명에서의 얻어진 미래 사회건설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몸에 지니고 새문화창조에 이바지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겠다.

<한국 YWCA 연합회 실행위원>

